

인물화 속에 담긴 '이야기' 를 이야기하다

군자의 삶, 그림으로 배우다
 조인수 지음
 다섯수레 펴냄
 1만9천8백원

다섯수레가 펴내고 있는 <아름답다 우리 옛 그림> 시리즈 3번째로 '인물화' 편이다. 한국 회화사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물화 50점을 선정하여 인물화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 준다.

'태조 이성계 초상', '고종', 신윤복의 '미인도', '화담대사의 진영', '서산대사 진영', 이경윤의 '탁족도', '왕생자를 극락으로 맞이하다, 아미타삼존도', '선재동자를 만나는 관음보살, 수월관음도', 김명국의 '달마도'에 이르기까지 책은 다양한 인물화를 통해 인물의 이력과 일화, 초상화를 그리게 된 동기, 그림의 용도와 활용 등을 소개하고, 발문이 있는 경우 주인공과의 연관성을 자세하게 소개하여 한층 더 흥미롭게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나라 옛 그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산수화지만, 그림이 처음 나타나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인물화였고, 당시는 인물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림 기법에서도 먼저 발달한 인물화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내용으로 하므로 보는 이에게 윤리를 중시하는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에 높은 수준으로 발달했고,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화풍과 내용이 변하면서 초상화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화가 꾸준히 그려



서산대사 진영 · 작자미상, 18세기



화담대사 진영 · 작자미상 19세기



김명국 작 달마도 17세기

졌다. 생활과 사상, 문화 등 시대의 관심사가 표현된 인물화는 역사의 기록이자 자화상이다.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여러 가지 인물화를 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로 나누어 대표적인 작품들을 살펴본다. 그림에 담긴 이야기와 이를 아름답게 표현한 화가들이 뛰어난 솜씨를 통해 삶과 혼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인물화에는 실제의 인물을 그린 초상화, 상류층 여인을 아름답게 그린 사녀도, 일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풍속인물화, 도교의 신선이나 불교의 부처와 보살 같은 종교 인물을 그린 도석인물화, 역사 속 인물의 유명한 이야기를 다룬 고사인물화가 있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이념

이 되고 사회를 유지하는 사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훈을 전달하는 인물화가 크게 유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도교와 불교가 유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인물화도 많이 나타났다. 종교 행사 때 사찰을 장식하는 화려하고 커다란 불화나 도상을 부리고 불로장생하는 신선도가 유명한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다. 이렇듯 인물화는 정치와 사상을 배경으로 하면서 종교적 믿음과 도덕적 신념을 잘 나타내 주는 그림이다.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초상화'를 다루고 있다.

'초상화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초상화가 많이 그려진 조선 시대에는 주인공의 모습을 '터럭 하나라도 틀림없이' 그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외형적인 유사함 못지않게 정신과 기품을 나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여러 번의 변란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조선 왕조의 분신 같은 존재가 된 '태조 어진', 당시 최고의 솜씨를 자랑하던 이명기가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 준 '오재순 초상', 채응신이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 준 '최연홍 초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2장에서는 '고사인물화'를 다루고 있다. 고사인물화의 주제는 역사 속 인물, 신화와 전설, 문학 작품의 주인공과 함께 도교와 불교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그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보다는 삶의 교훈을 주려는 교육적 목적이 큰 그림으로 김명국, 정선, 김홍도, 장승업 같은 뛰어난 화가들이 다양하게 그렸다. 속세를 극찬한 이명목의 '여초문답도', 국화처럼 청정한 선비의 마음을 표현한 정선의 '동리채국', 속세를 떠나 자연을 벗 삼고 독서로 살아가는 선비의 모습을 담은 이재관의 '오수도' 등을 통해 옛 이야기와 함께 인물들의 배경 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3장에서는 '도석인물화'를 소개하고 있다. 불교를 숭상하던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불화가 많이 그려졌지만 초기에 다소 쇠퇴했다가 조선시대 후반부터 번성했다. 도교 관련 그림은 신선도가 대부분으로 김홍도, 심사정, 장승업이 신선을 소재로 흥미로운 작품을 많이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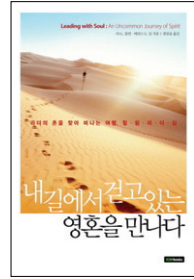
화려한 색상과 짜임새 있는 구도도 종교를 넘어선 빼어난 작품인 국보 제218호 '아미타삼존도', 관음보살의 자비로움이 잘 나타나 있는 '수월관음보살도', 김명국의 '달마도', 심사정이 걸인의 모습으로 불로장생한 신선 이철괴를 그린 '절름발이 신선 이철괴', 젊은 김홍도의 솜씨가 유감없이 드러난 국보 제139호 '군선도'를 소개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hillo@hyunbul.com

'영혼', 비즈니스 리더십에 적용

내 길에서 걷고 있는 영혼을 만나다

리G. 불먼/테렌스 E. 딜 지음 | 권상술 옮김
 IGMbooks 펴냄



"현대의 기술만능주의 사고는 우주에 사람을 보내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게 만들었지만,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주거나 일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리더십에 확신과 성실성을 심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영과 혼의 탐구입니다."

책은 인류가 단기간에 성취한 물질적 풍요 이전에 나타난 양극화, 고용불안과 실업, 노사갈등과 도덕적 해이, 세계 최고의 수준의 노동시간과 자살률 등 '풍요'의 부작용들이 가져온 인류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고찰이다. 특히 리더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무력감에 빠진 기업 경영자 스티브 캠퍼디 멘토인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 영적인 여행을 떠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룬 '이야기' 부분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생각거리를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한 '통찰'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류는 계속되는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9.11테러를 비롯하여 끊임없이 자행되는 테러는 앞서 언급한 부작용의 한 단면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문명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는 오히려 문명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엔론, 월드컴, AIG, 매도프 등의 불법 행위, BP의 기름유출 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일련의 비즈니스 리더들의 도덕적 해이와 근시안적인 시야가 만들어낸 결과들이다. 2008년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전 세계인의 의망을 산산히 부서버렸고 인류를 두려움과 경제적 불안에 빠뜨렸다. 저자는 "더 이상 제어를 할 수 없이 표류하고 있는 작금의 세대는 신념과 희망, 그리고 영감에 찬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책의 목적은 위의 사태들이 발생하게 된 인류의 일터에 깨달음과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애절한 외침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인류는 이에 따른 병리현상을 치유하려는 이른바 '힐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책은 진정한 힐링은 단순한 위로나 일과성 격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책은 그 힘을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리더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종교나 명상 분야에서 다루어지던 '영혼'이라는 개념을 비즈니스 리더십에 적용했다. 특히 사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의 영혼에 대한 성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해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나도록 독려하고, 자신의 영혼을 회복한 다음에는 타인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3 ~ 7/9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뒤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깨달음	법륜	정도출판
4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도출판
5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공리
6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쌤앤파크스
7	삶이 갖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8	살아있는 모든 산을 기쁨으로 바꾸는 탁한 명상	탁한	불광출판사
9	이렇게 말씀하셨다 (완역 집어함경)	김윤수	한산암
10	경동선사 연구	정도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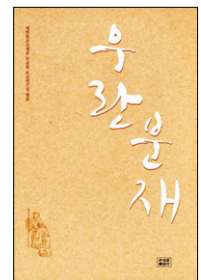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우란분재 왜 7월 15일에?

우란분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원연구실 지음
 조계종 출판사 펴냄 | 4천원



백중의 깊은 의미와 우란분재의 참뜻을 알리기 위한 책이다. 기존 소책자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 보강하고 <부모은중경> 변상도를 함께 실어 부모님 심대은의 감동을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개정판이다.

음력 7월 15일 백중날엔 우란분재를 지낸다. 왜 그날 우란분재를 지내게 된 걸까. 부처님이 우란분재를 7월 15일로 정한 데는 불교적 의미가 있다. 경전을 살펴본다.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여쭙는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에 13일, 14일은 택하지 않고 왜 꼭 7월 15일을 택하십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목련아 7월 15일은 모든 스님들이 여름안가를 마치고, 자자를 하는 날이라 즐겁게 한곳에 모이니

너의 어머니를 천도하여 정도에 태어나게 하리라."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은 가정과 사찰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였다. 각 가정에서는 익은 과일과 채소로 조상의 사당에 천신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마련하여 춤과 노래로 하루를 즐겼다. 절에서는 재를 울려 부처님께 공양하고 불자들은 우란분재를 베풀어 스님들을 공양하고 조상의 천도재를 올렸다. 그리고 공덕을 짓기 위해 방생을 하거나 선행을 했다.

우란분재는 출가자로서는 석 달의 안거를 마치고 자유로이 행각하며 또 다른 수행의 길을 모색하는 해방의 의미가 있고, 공덕의 가피를 입은 영가들로서는 업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종교적 해방의 의미가 있다. 또한 목련존자의 지극한 효심과 아울러 대중스님들의 거룩한 공덕의 힘이 불자들로 하여금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회이기도 하다.

우란분재를 지내는 날을 '우란분절'이라고 하는데 우란분절은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중요한 행사다. 우란분이란 <우란분경>에 나오는 말로 범어 울람바나의 속어형에서 파생된 어어이다. 번역하면 도연(倒懸), '거꾸로 매달린다'는 뜻이다. <목련경>을 보면, 중생이 지옥에 떨어질 때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업문에 달려 거꾸로 매달려

가는 것이 나오는데 이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거꾸로 매달린다는 것은 곧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지옥과 아귀도에 떨어진 중생이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서서 생활하는 인간이 거꾸로 매달린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부자유스러운 상태를 나타낸다. 육체의 부자유, 정신의 부자유가 바로 도연이다. 부자유와 고통으로 이루어진 지옥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고 있는 선량부모, 시방의 유주무주 고훈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재를 베풀어 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백중날에 우란분재를 행하면 현재의 부모는 수명이 백 년이고 병이 없으며, 모든 고뇌와 근심이 없게 되고, 과거 7대의 부모는 아귀의 고통을 떠나서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복과 낙이 다함이 없게 된다고 한다. 또한 중생들의 전도된 가치관 즉, 어리석어 세상을 잘못 보고 거꾸로 착각하는 중생심을 버리고, 지혜의 자성광명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거꾸로 살아 온 자신의 모습들, 즉 세속의 가치를 좇아 참된 가치를 버리고 있었던 일이나 자신의 이익을 타인의 행복을 짓밟았던 일, 부모님에게 불효한 일이나,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려서 행통했던 일 등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세우는 데 참뜻이 있다고 책은 설명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금하광덕 스님의 구도문답집
 초심 불자들을 위한
 <불교입문>의 결정판!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평범 지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보시는 어떻게 하는가?

인간, 부처님, 보살, 교리, 수행, 보시·진법, 생활, 기도, 참선, 한국불교 등 불교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200여 종의 문답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진리에 대한 믿음과 지혜, 용기를 불어넣어 삶의 등불이 되는 <불교 입문의 결정판!>

금하광덕 지음
 352쪽 | 12,000원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금하광덕 스님의 책들

- 경전 강의서
반아삼경 강의 | 보현행원공 강의
- 경전 번역서
금강반야바라밀경 | 천수관음경 | 부모은중경·관음경
지장경 | 한영 보현행자의 시인
- 선어록 번역서
육조단경 | 선관책전 | 무문관
- 법어집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 구도 문답집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 삶의 빛을 찾아서
- 삶의 지혜를 여는 권린집
행복의 법칙 | 빛의 목소리
- 광덕 스님 명상언어집
불·어름·가을·겨울(1·2) | 생명은 맑은 태서 정정한다
- 불교 의식집
우리말 불교요전 | 인화의식문 | 불자 수행인과의전 | 지장기도집
지송 금강경 | 지송 보현행원공